



10월의

육계전망 폭계전망



장민기
(본회 부회장
버들농원 대표)

◎ 개 황

추석무렵 이후 닭값 폭락현상은 비단 금년 만의 경우는 아니고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이 시기의 가격이 엉망이 되고 만다.

노련한 육계 사육농가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위의 경우를 잘도 피해 지나왔다. 그러나 금년의 경우 추석과 더불어 아시안게임이 있어 분에 넘치는 호경기를 예상하여 입식에 열을 올린 농가는 대단히 큰 곤욕을 치르게 되어있다.

필자는 병아리 입식 당시 아시안게임에 큰 기대를 갖지 말고 병아리 입식을 자중해서 육계 사육농가 스스로 생산을 조절해 줄 것을 간곡히 호망한 바 있다.

◎ 분 석

1) 5, 6, 7, 8월의 육계가격이 그런대로 생산비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병아리는 계속해서 품귀상태가 지속되었고 이러한 육계 사육농가의 필요요구에 의해서 병아리는 어쩔수 없이 계속 증산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2) 7월의 전기사료 생산량으로 볼 때 7월

의 육계병아리 생산은 줄잡아 2,150만수가 넘었을 것으로 말복 이후 계육소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감안할 때 9월 중순 이후의 닭값 폭락현상은 필연적인 것이 었고 오히려 추석이다. 아시안게임이다하여 이 시기에 계육의 추가수요가 클 것으로 간파한 육계 사육농가는 앞서 출하할 일령의 닭들도 출하시기를 낮추어 왔기 때문에 육계가격의 하락폭이 더욱 컸었던 것 같다.

3) 8월의 육계 전기사료는 7월 대비 약 13%정도 감소는 했으나 소비감소는 그 이상 이어서 10월의 닭값도 경영비전에 훨씬 미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4) 8월 하순 이후 9월 초순경 병아리 입추가 잠시 주춤한다 싶더니 웬일인지 금새 병아리가 다시 부족한 현상까지 나타났던 점으로 보아 닭값의 하락현상은 장기화할 조짐이 보인다.

5) 9월의 육계 전기사료 생산추정을 27,000t으로 볼 때 육계 불항요소는 더욱 크다고 판단된다.

6) 금년 여름 노계도태가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많은 부화장에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병

아리 값이 좋았던 관계로 노계도태를 늦추어 왔고 일부 도태는 났지만 강제환우도 많이 된 것 같다.

7) 육계 사육농가가 입식을 과감히 감축하여 생산조절을 대폭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10월에도 육계 전기사료는 24,000t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이제라도 과감한 입추조절이 절실히 요망된다.

8) 본 협회 육계분과 위원회는 육계경영과 전망에 관하여 육계인들 스스로가 검토 분석하여 육계경영에 참고토록 하고 있다. 매일 27일 오후 2시에 개최되는 회의는 참석에 제한을 두지 않아 육계인이면 누구라도 참석할 수가 있다 (단, 참석회비 1만원지참) 독자들의 많은 이용 있길 바란다. ■

83~86사료, 병아리(생산수, 잠재력) 가격 비교

월	년도	사료(천톤)		병아리 생산수 (천수)	잠재력 (천수)	가 격 (원/kg)	
		전기	후기				
1	83	18.8	29.4	8,659	12,600	1,124	
	84	13.4	25.9	7,394	16,521	995	
	85	19.6	27.3	11,500	14,596	1,115	
	86	21.0	31.6	14,000	14,500	966	
2	83	20.8	31.4	10,284	13,070	1,047	
	84	12.9	16.5	9,356	17,551	1,134	
	85	19.8	29.7	12,000	14,519	1,050	
	86	21.1	32.8	14,000	15,200	740	
3	83	27.3	41.5	13,130	13,880	739	
	84	23.3	19.7	12,922	18,534	1,353	
	85	22.9	33.0	13,000	15,164	750	
	86	24.5	36.7	16,000	16,500	650	

4	83	23.1	43.8	14,004	14,655	739	
	84	26.7	30.2	14,060	19,158	1,048	
	85	23.6	35.4	14,500	15,719	870	
	86	26.4	38.0	16,800	17,700	800	
5	83	29.2	43.9	13,608	14,845	789	
	84	29.9	42.0	16,196	18,809	785	
	85	26.1	36.9	15,500	16,500	870	
	86	31.0	37.9	19,350	18,600	957	
6	83	32.1	48.4	15,420	902		
	84	29.0	44.6	13,022	18,124	733	
	85	28.7	38.9	16,500	17,000	870	
	86	34.2	43.7	20,625	19,000	898	
7	83	28.6	49.6	14,464	12,898	876	
	84	23.7	41.5	11,433	16,668	987	
	85	28.1	43.5	16,000	14,500	950	
	86	34.4	54.5	21,500	17,300	895	
8	83	26.6	44.9	12,609	11,893	899	
	84	20.1	28.8	11,029	14,686	1,180	
	85	25.3	34.5	14,500	13,000	1,100	
	86	30.0	47.3	19,000	15,600	908	
9	83	23.9	48.9	13,340	11,469	802	9/25
	84	19.5	29.1	10,038	13,408	977	400원
	85	22.0	38.5	12,000	12,500	840	이하까지
	86	추27.0	추42.5	추17,000	15,000		하락
10	83	22.5	43.3	11,361	11,362	608	
	84	19.4	29.5	9,980	13,064	900	
	85	20.4	35.7	11,500	11,000	714	
	86	추24.0	추38.0	추15,000	15,120	추650	
11	83	29.3	37.5	10,373	13,389	747	
	84	19.6	28.1	10,483	13,810	952	
	85	21.4	31.3	11,000	11,000	831	
	86	추24.0	추38.0	추15,000	15,600	추700	
12	83	17.9	38.8	8,193	15,069	772	
	84	20.8	33.5	10,654	14,349	951	
	85	23.7	37.2	12,800	11,500	950	
	86	추24.0	추38.0	추15,000	15,990	추750	
계	83	296.1	501.4	145,447	159,811	845	
	84	258.3	369.4	136,567	194,682	1,000	
	85	281.6	421.9	160,800	177,000		
	86						

표 2. 표본 10개 사료메이커의 생산량 순별비교

사료	월 년도	5			6			7			8			9		
		초	중	하	초	중	하	초	중	하	초	중	하	초	중	하
전 기	85	3,360	2,859	3,295	3,066	3,385	3,518	3,332	3,071	3,231	2,671	2,819	3,182	2,475	2,380	2,215
	86	2,500	2,350	3,165	2,673	3,429	4,715	2,986	3,561	3,687	2,796	2,742	3,152	2,535	2,429	추2,700
후 기	85	3,060	3,385	3,912	3,182	3,451	4,264	3,962	3,984	4,258	2,890	2,454	3,494	3,015	3,741	3,642
	86	2,417	2,545	3,686	2,802	3,201	4,039	3,990	4,282	5,352	3,352	3,724	5,101	5,119	4,258	추5,100
계	85	6,420	6,244	7,207	6,248	6,836	7,782	7,294	7,055	7,489	5,561	5,273	6,676	5,490	6,121	5,857
	86	4,917	4,895	6,851	5,474	6,630	8,790	6,976	7,843	9,039	6,148	6,466	8,253	7,654	6,687	7,800